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성호 대구파티마병원 신장내과 과장

“강하고 담대하라.”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유대인을 탈출시킨 지도자 모세가 죽은 후 유대 민족을 고향 가나안으로 인도할 책임에 힘겨워하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말이다.

쓸개 담(膽) 클 대(大). ‘쓸개가 크다’는 뜻의 담대(膽大)는 겁 없고 용감한 것을 이르는 말이다. 흔히 용감한 사람을 ‘담력(膽力)이 세다’라고들 한다. 반대로 용기나 뜻대 없는 사람을 ‘쓸개 빠졌다’고 한다. 인체에 대한 지식이나 부족하던 시절 용기는 쓸개에서 나온다고 생각했다.

쓸개 즉 담낭(膽嚢)은 ‘쓰다’라는 말에서 나왔다. 오월 동주(吳越同舟)란 말이 있지만 고대 중국 오나라와 월나라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 월(越)과 전쟁에서 아버지와 형을 잃은 오나라 왕자 부차는 편한 잠자리 대신 잠자리에 누워 자는 한편 쓰디쓴 쓸개를 씹으며 복수의 칼을 갈았다는 말이 와신상담(臥薪嘗膽)이다. 씹어 보진 않았으나 쓸개액은 정신이 반짝 들 정도로 쓰다고 한다.

쓸개액 담즙(膽汁)은 이름과 달리 쓸개가 아니라 간에서 만들어진다. 쓸개는 간에서 흘러온 액을 저장했다

나의 담낭 절제기

가 필요할 때, 즉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 소장으로 내려 보내 소화를 돕는데, 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니 위치도 간 바로 밑이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라는 말도 여기서 나왔다.

언젠가 쓸개에 탈이 나서 아팠다. 처음에는 별로 심하지도, 자주 아프지도 않았다.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을 때만 아프다 보니 오히려 ‘음식 조심하라’는 몸의 경고로 생각하고 참고 견뎠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자주, 심하게 아파서 급기야 견딜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없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싶어 수술하기로 했다.

시간 내기가 그다지 어려운 수술이 아니지만 불과 150여 년 전만 해도 담석증은 불치병이었다. 제대로 된 마취도 없고 “배를 열면 공기에 노출된 내장에 염증이 생겨 죽게 된다”라고 알려진 시절이라 수술은 꿈도 꾸지 못했다.

1867년, 미국 의사 존 스톱 밥스는 4년간 통증에 시달리던 환자가 ‘죽어도 좋다’며 매달리자 수술을 결심했다. 쓸개에 구멍을 뚫어 돌과 쓸개즙을 빼내어 고통을 덜어 주었지만 쓸개는 그대로 두었다. 돌과즙이 쓸개에서 흘러나오는 길을 남겨 놓은 불완전한 수술이었

다. 그러나 통증이 사라진 환자는 만족했다.

1882년, 독일 의사 칼 랑겐바흐는 쓸개를 제거하는 새로운 수술법 개발을 위해 수년 간 연구 끝에 최초의 담낭절제술을 시행했다. 16년간 통증에 시달려 체중이 40kg이나 감소한 43세 환자는 수술은 성공리에 끝났고 6주 후 건강하게 퇴원하였다. 랑겐바흐는 이 사례를 학회에 발표했으나 무시당했다. 의사들은 여전히 쓸개에 구멍 뚫는 수술을 고집하며 랑겐바흐를 비난했다. 하지만 랑겐바흐는 좌절하지 않고 담낭절제 수술을 계속한 끝에 1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인정받게 되었다. 담낭절제술은 이제 충수절제술(맹장 수술) 다음으로 많이 하는 복부 수술이 되었다.

불과 이십 년 전만 해도 담낭절제술은 오른쪽 갈비뼈 밑에 20cm 정도 긴 수술 자국을 남기고, 1-2주의 입원 기간과 한 달 이상 회복기가 필요한 큰 수술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1cm 정도의 작은 구멍만 내고 내시경을 넣어 쓸개를 잘라 내는 복강경 수술이 보편화되면서 입원 기간과 회복 기간도 현저히 줄어들었다. 심지어 멀리 떨어진 환자에게 원격으로 로봇을 조종해서 수술할 정도에 이르렀다.

지금 기준으로 과거를 돌아보면 어이없듯이, 미래의 사들은 병든 장기를 잘라 내는 현대 의료를 비웃을지 모른다. 하지만 과거에도 오늘날에도,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금 의학이 가장 최신 의학이다. 그리고 새로운 의술에 몸을 맡기는 환자들은 물론 무관심이나 비난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개척한 의사를 덕분에 의학은 조금씩 발전한다. 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기고

여순10·19-제주 4·3 연대와 공유로 교실서 만나다



장석웅 전남도교육감

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 3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과 의미 있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두 교육청은 제주 4·3과 여순 10·19를 매개로 연대와 공유의 평화·인권 교육을 함께 진행하기로 약속했다. 계기 수업과 기념행사, 체험학습, 평화·인권 교육 관련 연수 및 수학여행 등의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날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디딤돌로 삼기 위함이다.

제주 4·3과 여순 10·19는 쌍둥이처럼 연결되어 있다. 제주 4·3이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 반대를 외치며 피로써 저항한 민중항쟁이라면, 여순 10·19는 그 숭고한 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하려는 명령을 거부한 여수·순천 지역 군인과 시민들의 정의로운 투쟁이라 할 수 있다.

제주 4·3이 없었다면 여순 10·19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여수의 14연대 군인들은 제주 토벌 출동 명령을 제주 사람들의 통일정부 수립 염원을 지녔는 것으로 여겨 단호히 거부했다. 당시 그들이 외친 ‘동족상잔 결사반대’라는 구호에 그 숭고한 뜻이 담겼다. 결국 두 사건은 단독 정부 수립에 대한 저항이자 통일 정부 실현

의 염원을 담고 있다. 이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국가를 만들려는 우리 지역민들의 나라 사랑과 정의로운 정신의 표현이기도 하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순 10·19란 용어 속에 들어있는 여수와 순천이라는 지역명 때문에 이 지역에서만 발생한 사건으로 인식했다. 하지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그 피해 지역이 전남 전체와 전북 및 경남 일부를 포함해 37곳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도까지 포함하면 그 영역은 더 넓어진다.

열대 보수정권들은 두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했다. 진실을 밝혀달라는 생존자와 유가족들의 외침을 외면하고 짓밟았다. 그래서 두 사건은 반세기가 넘도록 입 밖에 내놓지 못하고, 알고서도 몰라야 하는 일이 되어버렸다. 소설가 김석범은 이것을 ‘기억의 자살’이라고 정의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기억이 말살당한 곳에는 역사가 없고, 역사가 없는 데는 인간의 존재도 없게 된다. 기억을 잃어버린 사람은 사람이 아닌 주검과 같은 존재인 것이다.

“정의는 기억 속에서 실현된다”는 철학자 사르트르의 말처럼, 두 지역민들은 잃어버린 기억을 되살려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여수와 순천을 중심으로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1989년), 여수지역사연구소(1995년), 여수사건 화해와 평화를 위한 순천시민연대(2003년), 순천대 여순연구소(2018년), 여순10·19특별법 제정 범국민연대(2018) 등의 시민단체가 결성됐다.

여순 10·19 생존자와 유족들도 마침내 침묵을 깨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지난 2000년 유족회를 만들었다. 2006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발족해 여순 10·19와 관련된 1102건의 진상이 밝혀졌다. 이를 바탕으로 유족은 명예 회복과 배·보상 판결을 받기도 했다. 순천·여수 시의회는 특위를 구성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전라남도의회에서도 ‘여수·순천 10·19사건 특위’를 결성해 지난해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 규명 및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국회에서도 여순 10·19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여야가 합의해 법안 소위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특별법을 두 번이나 제정한 제주 4·3과 비교하면 대단히 늦은 노력이지만, 이렇게라도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

이제 제주 4·3과 여순 10·19가 지닌 본질과 정신, 그것이 주는 교훈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두 사건은 당시 국민들이 갖고 있던 통일 정부 수립의 염원을 국가 권력이 폭력으로 진압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여기에는 인권과 평화, 그리고 통일의 염원이 오롯이 담겨 있다. 두 교육청이 연대해 다시는 침묵이 강요당하지 않게 해야 한다. 파편화된 기억을 연결해 역사의 진실이 다져서도록 해야 한다. 이 소중한 연대기여사의 진실과 마주하며, 평화·인권 교육으로 이어지고, 미래의 희망으로 피어나기를 바란다. 제주의 동백과 여수의 동백이 하나 되어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의 큰 꽃병오리로 피어 오르기를 소망한다.

종교칼럼

봄은 왔는데



중현 광주 중심사 주지

봄비가 내린다. 봄비답게 온종일 부슬부슬 내리더니 오후 늦게서야 그쳤다. 봄은 그리 쉽게 오지 않는다. 문턱까지 왔나 싶다가도 어느샌가 대문 밖으로 도망가 버리곤 한다. 하지만 어느 틈에 와버렸다. 물기 머금은 목련 꽃망울이 터질 듯 잔뜩 부풀어 올랐다.

정말 신기하게도 목련꽃은 해마다 이맘때면 작년과 똑같은 모양새로, 똑같은 방식으로 핀다. 해마다 접하지만 봄 때마다 신기하다. 어쩌면 한 해도 빼먹지 않고 매년 똑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신기하기 짝이 없다. 심지어 그런 목련을 대하는 나의 태도 역시 해마다 똑같이 반복된다. 나는 마치 습수기라도 하듯 너무나 자연스럽게 축축하게 젖은 목련 꽃망울을 찍는다.

하지만 살아오면서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그 어떤 분노나 좌절 없이, 일말의 불안이나 두려움도 없이 맑은 마음으로 목련의 개화를 본 해가 몇 번이나 있었는가. 작년 이맘때는 몸이 고장난 덕에 아름답게 피고 지는 목련을 원 없이 볼 수 있었다. 마당의 목련이 피고 지는 걸 바라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이다.

해마다 피는 목련은 어느 때와 다름없지만 목련을 대하는 우리는 매년 다르다. 올해 목련은 저 멀리 미안마의 학살 뉴스와 함께 피어난다. 한때 80년 광주를 떠올리면 어떻게 사람이 같은 사람을 학살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 미안마는 지난 광주의 모습 그대로이다.

일대일로 정책에 따라 미안마를 자국의 영향력 아래 두어 인도양으로의 진출을 손쉽게 하려는 중국의 입장에서 친서방적인 미안마 민주정부가 못 마땅할 것이다. 반면 중국의 남하를 막으려는 미국은 친중국 성향의 군부가 몹시 맘에 들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현 미안마 상황의 바탕에 두 강대국간의 힘 겨루기가 깔려 있어, 국제 사회의 미안마 군부에 대한 제제는 한계가 분명하다. 국제 정치는 오직 약육강식만을 허락한다. 강대국 간 힘겨루기 싸움에 희생당하는 쪽은 약소국의 민중들이다. 마음이야 지금 당장이라도 봄이 오면 좋겠지만, 미안마는 지금 늦은 가을 어디쯤에 있는 듯하다.

그동안 코로나19를 핑계 삼아 사람의 일에서 애써 눈을 돌려 자연과 벗어날 샅았다. 꽃이 피고, 일사구가 돌아나고, 아침 햇살이 은비늘처럼 반짝이고, 햇살 사이로 새들의 지저귀이 간지럽게 들려오는 자연 속에 마음을 맡기고 살았다. 이곳 무등산 자락에도 봄이 찾아오고 있다. 산수유가 피고, 매화가 피고, 목련이 피고, 수선화가 피고 있다. 꽃은 어김없이 피는데 사람들의 총칼에 사람들이 하염없이 지고 있다. 과거의 우리가 그랬듯 미안마의 민중들은 군부의 총부리에 피를 흘리

고 있다. 해마다 어김없이 목련은 피는데, 미안마의 민중들은 때 이른 봄꽃처럼 흠날리며 쓰러지고 있다.

다른 곳도 아닌 이곳 혁명의 도시 광주에서, 다른 산도 아닌 무등산의 새인봉을 바라보며 봄날의 아침을 맞이하고 있다. 미안마의 오늘을 보며 우리의 과거를 떠올리는 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마침 왓차에서 4K 화질로 리마스터링한 왕가위를 곧 서비스한다고 한다. 새벽에 이 소식을 접하고 나도 모르게 울컥했다. 한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언제나 그리운 왕가위의 흥풍이 기별도 없이 불쑥 찾아온 것이다. 왕가위의 흥풍은 지난했던 지난 시절의 삶을 언제나 위로하고 있다. 최소한 나의 경우는 그랬다. 그 시절에 왕가위가 없었다면 내 삶은 지금보다 만년은 더 팍팍했을 것이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쓰디 쓴 커피를 들이키는 양조위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던지...

저녁 내내 오후의 목련꽃을 생각하다가, 내일 할 법문을 생각하다가, 미안마의 민중들을 생각하다가, 중국 본토의 압제에 신음하는 지금의 홍콩을 떠올리다가...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이다.

올해의 봄은 사람 사는 세상 속에서 울트고 있다. 꽃이 피었다고 해서 봄이 온 것은 아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활짝 웃어야 마침내 봄이 오는 것이다. 봄은 항상 울 듯 말 듯 잔뜩 땀만 들다가 어느샌가 흠뻑 가 버리곤 했다. 그러나 올해는 그러지 않기를 진지하게 권하고 싶다. 제대로 와서 충분히 의미할 기회를 주길 바란다. 봄을 즐길 기회라도 없다면 사는 게 너무 어찌구미가 없어서 하는 말이다.

社說

외지인 전남 농지 투기 근절 방안 시급하다

땅값 기준으로 전남 지역 농지 중 3분의1가량이 외지인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대상이 대부분 농지였던 것을 감안하면 전남 농지에도 외지인 투기 세력이 침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펴낸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남 전·담·과 수원의 지가 총액은 27조9060억 원으로 이 가운데 3분의1가량인 29.4%(8조1990억 원)가 타 시도 거주자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지인 비중은 전남이 전국 평균(25.0%)이나 특·광역시 평균(24.7%)보다 높았다. 특히 논길을 끄는 접은 외지인 등 유망한 땅값 상승률이 전남 지역 거주자들의 땅값 상승률보다 높게 나타난 점이다. 이는 부동산 투기 세력의 유입 가능성을 시사한다.

실제로 전남 농지의 지가 총액은 3년 만에 17.7% 증가했지만, 타 시도민 보유 지가는 26.9% 올라 사·군·구 거주자(18.7%)나 시도 내 거주자(25.6%)의 상승률보다 높았다. 면적에서도 2016년

부터 2019년 사이 현지인(사·군·구 거주자) 소유의 농지는 3.4% 줄어든 데 비해 외지인 소유는 오히려 3.9% 늘었다.

면적이나 땅값 측면에서 모두 외지인들의 전남 농지 소유가 늘어난 것은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 바람이 외진 이곳까지 불었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그런데도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농지 원부 등록률은 전남 지역이 63.7%로 전국 꼴찌여서 부동산 투기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구조다.

정부는 최근 LH 땅 투기 사태를 계기로 농지관리 개선 방안을 내놓았지만 현장에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부당 이익 환수 문제만 하더라도 법적 조항에 과징금을 상향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국농민회총연맹의 지적처럼 농지에 대한 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외지인이 쉽게 만들 수 없도록 농업회사 법인의 설립 요건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비농업인 농지 소유 제한이나 농지 투기 이익금 전액 환수 등 보다 강력한 대책도 필요하다.

‘한국 섬 진흥원’ 목표 유치 총력 기울여야

행정안전부가 ‘한국 섬 진흥원’ 설립 후 보지를 이달 중으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 섬 진흥원은 오는 8월 출범을 목표로 설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이달 중으로 현장 실사와 심사 등 후보지 선정 절차를 진행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한국 섬 진흥원을 목표로 유치하기 위한 지역민들의 여망이 결집되고 있다.

한국 섬 진흥원은 정부 출연기관으로, 향후 5년간 생산유발 효과 407억 원, 부가가치 효과 274억 원 등의 경제적 파급 효과 예상된다. 정부가 설립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공모에 나선 결과 목표를 비롯해서 경남 통영·남해, 충남 보령·홍성 등 전국에서 8개 지역이 유치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남에 섬 진흥원이 오는 것은 어찌 보

면 당연한 일이다. 우리나라 섬의 65%(2165개)가 전남 지역에 있고,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개발 대상 도서 가운데 60%가 전남에 있기 때문이다. 최근 신안군이 섬 진흥원 유치 신청을 철회하고 목표를 지향한 데 이어 목포·안동·진도 등도 유치를 위해 손을 잡는 등 상생의 연대가 이뤄진 점도 매우 긍정적이다.

전남도와 목포시는 이제 섬 진흥원 유치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역량을 최대한 결집해야 한다. 섬 진흥원 설립 최적지로서 목표의 강점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정부에 지향하는 국토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지역의 강점을 내세우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전남에 섬이 많다는 당위를 내세우기보다 국가 차원에서 전남에 비중을 부여할 수 있는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얘기다.

無等鼓

중국 전국시대 진(秦)나라의 정치기인 상앙은 법치주의 정치를 펼쳐 진나라의 천하통일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하지만 10년간 재상으로 있으면서 강력한 법 집행으로 인해 기득권 세력은 물론 서민들에게까지 원한을 사기도 했다.

사마천의 사기(史記) ‘상군열전(商君列傳)’에 따르면 상앙은 원래 위(衛)나라 사람이었으나 진나라 효공에게 발탁돼 두 차례의 변법(變法)을 실행했다. 상앙은 귀족의 특권을 없애고 군공(軍功)의 여부에 따라 작위를 수여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작법자매

또 연좌법을 실시했으며 토지 매매 허가제나 도

량형 통일 등의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서민들에게 공포를 안겨 주었던 연좌법은 나중에 상앙의 목숨을 빼앗는 결과를 초래한다. 열 가구 또는 다섯 가구를 한 조로 묶어 서로를 감시하고 고발하게 했으며 한 가구가 법을 어기면 모든 가구를 처벌한 것이 바로 연좌법이다. 범죄자를 고발하지 않으면 허리를 자르는 벌을 내렸으며 고발한 자에게는 상을 내렸다. 범죄자를 숨겨 주면 적에게 투항한 죄에 해당하는 처벌을 했다.

왕이 바뀌자 귀족들의 모함이 시작되고 체포 명령이 떨어지자 상앙은 도주하게 된다. 상앙은 도망치다가 어느 여관을 찾았지만, 주인은 여행증이 없는 사람을 받으면 처벌받는 법 때문에 안 된다며 숙박을 거절했다. 이때 상앙은 “내가 만들어 놓은 법이 오늘날 나를 해치는구나”라고 탄식했다고 한다. 결국 그는 잡혀서 거열형(車裂刑)에 처해졌다. 여기에서 ‘자기가 만든 법에 자신이 죽다’라는 뜻으로, 자기가 한 일로 인하여 자신이 고난을 받는 경우를 비유하는 고사성어 ‘작법자매(作法律自戮)’가 생겨났다.

재계약 시 임대료를 5% 넘게 올리지 못하도록

록 한 임대차법 시행을 주도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관련 법 시행 이틀 전에 전세 계약 갱신을 하면서 전셋값을 8억 5000만 원에서 9억 7000만 원으로 올린 사실이 최근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었다. 이로 인해 그는 불명예 퇴진에 이어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다 해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까지 당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과 권한을 이용해 부를 축적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든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재희회 사회부장 cha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崔宰豪</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 부 220-0649	문화 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 부 220-0632	에 항 부 220-0692	기획 관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경제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 부 220-0652	체 육 부 220-0621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전 남 본 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